

# 언어 영역

제 1 교시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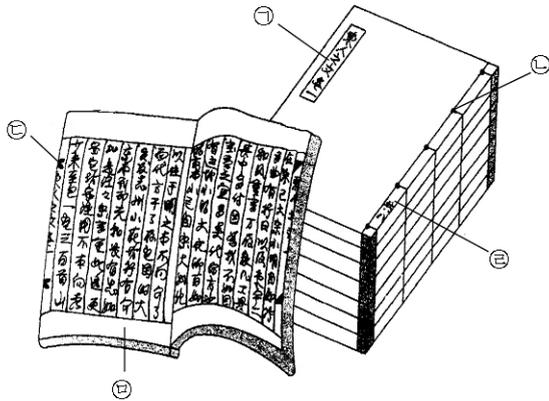
수험번호

1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과 1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강의에서 언급한 '제침'에 해당하는 부분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2. (물음) 이 대화에서 남녀 학생이 비판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기업은 이해타산적인 관행을 버리지 않는다.
- ② 씨름을 관광 상품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 ③ 씨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
- ④ 젊은 세대는 민속 씨름 경기에 대한 관심이 적다.
- ⑤ 민속 씨름의 경기 방식이 관중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3. (물음) 이 강연을 들려주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은? [1점]

- ① 거듭된 실패로 의욕을 잃은 사업가
- ② 성급한 투자로 손실을 입은 벤처 기업가
- ③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 바라는 수험생
- ④ 창의적인 사고 없이 주어진 일만 하는 직장인
- ⑤ 상속권 다툼으로 가정의 화목을 깨뜨린 사람들

4. (물음) 취재 기자가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10원짜리 동전이 쓰이는 사례
- ② 10원짜리 동전을 교체하는 이유
- ③ 새로 바뀌는 10원짜리 동전의 무게
- ④ 10원짜리 동전을 소지할 때의 불편
- ⑤ 10원짜리 동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5 ~ 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두 토론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1점]

- ① 우리말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 ② 현실적으로 한자 시험은 효용성이 높다.
- ③ 다른 문화에 비해 우리 문화가 우수하다.
- ④ 한자는 다른 외국어에 비해 배우기 쉽다.
- ⑤ 관광객 유치에 위해 한자 해독 능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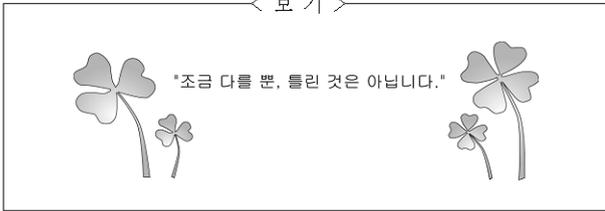
6. (물음) 두 토론자의 주장을 사회자가 정리했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론자	주 장 의 내 용
김 이사	○ 실제 경제 현장에서 한자의 필요성 ..... ㉠
	○ 교역국으로서의 중국과 일본의 중요성 ..... ㉡
	○ 동북아 문화권에서 한자의 중요성 ..... ㉢
박 교수	○ 취업 준비생의 시험 부담 과중 ..... ㉣
	○ 중국, 일본과 다른 우리나라의 한자
	○ 외국어 교육의 대중화 ..... ㉤

- ① ㉠    ② ㉡    ③ ㉢    ④ ㉣    ⑤ ㉤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보기>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연상한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타인의 개성을 존중하자.
- ②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를 갖자.
- ③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자.
- ④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를 갖자.
- 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갖자.

8. <보기>의 개요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목 : 모조품 유통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I. 서론 : 문제 제기

II. 본론

1. 실태

가. 모조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 사례 급증

나. 모조품 유통 시장의 급격한 팽창

2. 모조품 유통의 문제점

가. 정품 판매 감소

나. 신기술 개발 의욕의 저하

3. 문제의 원인

가. 명품 선호 심리

나. 모조품 생산자의 비양심적 행태

다. 모조품 유통에 대한 허술한 관리

4. 해결 방안

가. 합리적인 소비 행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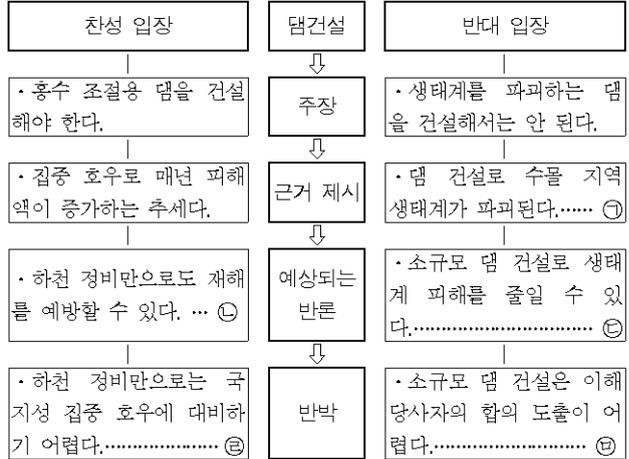
나. 모조품 생산자 신고 포상 제도 도입

다. [A]

III. 결론 : 개인의 건전한 소비 문화 계도

- ① 'II-2'에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유통 구조의 왜곡'을 첨가한다.
- ② 'II-3-나'는 문제의 원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II-2'로 옮겨서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 ③ 'II-4-가'는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문제의 원인을 고려하여 '명품 선호 의식의 불합리성 홍보'로 수정한다.
- ④ [A]에는 'II-3-다'를 고려하여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한 단속 강화'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III'은 전체 내용을 고려하여 '개인의 의식 계도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로 고친다.

9. '댐 건설'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사고를 전개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실의에 빠진 친구에게 엽서를 보내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A]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나무**

가을 숲으로 가리,  
내 생애 가장 고운 빛깔로  
옷 갈아입고  
못다 부른 노래를 부르리,

언덕 위에서  
열정의 빛깔로 타는 나무들,  
바람결에 허물 같은 옷을 벗고  
나이테를 새기리니,

시린 겨울이 와도 춥지 않으리,  
[A]

- < 보 기 >
- 비유적으로 표현할 것
  - 시의 어조를 유지할 것
  - '동행'의 의미를 담을 것

- ① 달도 별도 새도 찾아와 / 늘 푸른 나무에게 / 친구가 되자고 하네.
- ② 가장 오래 흔들린 나무가 / 가장 멀리 향기를 보내는 / 가을 숲으로 가리.
- ③ 내 생애 가장 고운 빛깔로 / 외로이 머물며 /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리.
- ④ 겨울이 가면 봄이 오리니 / 산에 들에 언덕에 / 나무처럼 새일을 피우리라.
- ⑤ 우리 생애 마지막 빛깔로 / 옷 갈아입고 / 햇살 같은 노래를 함께 부르리.

11.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점]

< 보 기 >

㉞ GNP 순위(세계 은행, 2004)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한국
1위	2위	4위	10위	13위

㉟ 행복지수 순위(NEF, 2006)

바누아투	코스타리카	한국	프랑스	미국
1위	3위	102위	129위	150위

㊱ 살기 좋은 나라 순위(UN, 2002)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웨덴	캐나다
1위	2위	3위	4위

- ① ㉞와 ㉟를 활용해 경제 수준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님을 밝힌다.  
 ② ㉞와 ㉟를 활용해 삶의 만족은 주관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③ ㉞와 ㉟를 활용해 선진국일수록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④ ㉞, ㉟, ㊱를 활용해 자연 환경이 행복의 요건임을 밝힌다.  
 ⑤ ㉞, ㉟, ㊱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을 말한다.

12. <보기>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지역 축제 문화 이대로 좋은가?**

지역 축제는 지역의 특색을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결속을 ㉠ 다지면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일종의 문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자치 단체들은 앞 다퉈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 최근 다양한 형태의 지역 축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자치 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다. 특산물 홍보를 위한 축제, 문화재를 활용한 축제,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상 문화 축제 등이 그것이다.

㉢ 문제는 이러한 지역 축제가 무분별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치밀한 준비 과정 없이 일단 ㉣ 벌리고 보자는 식으로 시행하다 보니 외지인의 호응도 적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 저조하다.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제가 중복되는 축제를 줄이고,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축제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 ㉤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 ① ㉠은 문맥상 어색하므로 '다질 뿐만 아니라'로 수정한다.  
 ② ㉡은 앞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생략한다.  
 ③ ㉢은 앞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앞 문단에 이어 준다.  
 ④ ㉣은 '일을 펼치다'의 뜻이 담긴 어휘가 되어야 하므로 '벌이고'로 고친다.  
 ⑤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13. '문장의 중의적 표현'에 대한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과제	문장의 중의적 표현
정의	한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문장의 중의적 표현이라고 한다.
예문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중의적 내용	용감한 사람이 '그'로, '그의 아버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중의성 해소	㉠ 그의 용감한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 ① ㉠에서 '용감한'의 주체는 '아버지'로군.  
 ② ㉡는 첨표를 넣어 주니 문장의 뜻이 명확해지는데군.  
 ③ ㉢에서 '용감한'의 주체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로군.  
 ④ ㉢은 성분의 이동과 첨표에 의해서 ㉡와 뜻이 같아지는데군.  
 ⑤ '그것은 엄청난 시간과 돈의 낭비다'는 문장도 중의적 표현이군.

14. <보기>는 동음이의어에 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반의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동음이의어란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들을 말한다. 따라서 단어 간의 의미 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반의어도 달라질 수 있다.

↓

(예문)

- 어머니를 도와 김장독을 ㉠ 물다 보니 옷에 때가 ㉡ 묻었다.
- 목욕탕에서 안경을 ㉢ 껴더니 렌즈에 김이 잔뜩 ㉣ 끼었다.

- |   |     |    |    |     |
|---|-----|----|----|-----|
|   | ㉠   | ㉡  | ㉢  | ㉣   |
| ① | 파내다 | 지다 | 벗다 | 걸히다 |
| ② | 들추다 | 비다 | 빼다 | 뺏히다 |
| ③ | 캐내다 | 파다 | 뺏다 | 빠지다 |
| ④ | 들추다 | 비다 | 벗다 | 걸히다 |
| ⑤ | 파내다 | 지다 | 빼다 | 빠지다 |

[15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 밤이 어두웠는데  
눈감고 가거라.

가진 바 ㉡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부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외짝 떠라.

- 윤희동주, 「눈감고 간다」 -

(나)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냇을 살게 하자.

㉣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던  
㉤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 마음 나라의 원광(圓光)\*은 떠오른다.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냇을 살게 하자.

- 조지훈, 「마음의 태양」 -

\*원광 : 둥글게 빛나는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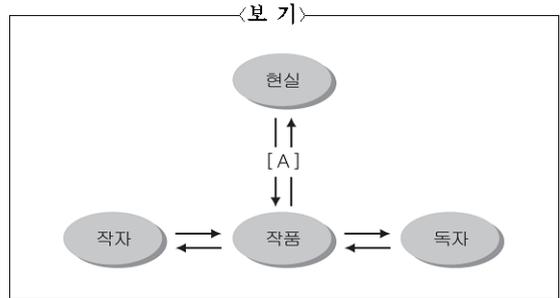
(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주빰주빰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 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15. (가) ~ (다)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시 낭송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안내장의 표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눈물의 바다에 서서
- ② 추억의 그림자를 따라
- ③ 겨울 무지개를 찾아서
- ④ 꽃들의 노래를 들으며
- ⑤ 노을 진 하늘을 벗하며

16. <보기>의 [A] 관점에서 (가) ~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가)에서 화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이 '밤'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② (나)의 '높은 냇'은 시인의 정신세계를 대변하고 있다.
- ③ (나)를 통해 '고난'은 성숙한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 ④ (다)에서 '편지'는 잠 못 드는 이를 위로하는 기능을 한다.
- ⑤ (가), (다)에서는 화자의 어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17. ㉠ ~ ㉥ 중, ㉠과 유사한 발상과 표현이 나타난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나)의 화자에 대해 (다)의 화자가 보인 비판적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괴로움과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것은 소극적인 삶의 태도가 아닌가요?
- ② 마음이나 냇이 맑고 높다고 해서 현실적인 괴로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③ 상대와는 다른 입장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기적인 태도가 아닌가요?
- ④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하지 않을까요?
- ⑤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고의 삶을 권유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 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9. (다) 시어 중, ㉢의 함축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허공    ② 진눈깨비    ③ 바람    ④ 붉은 상처    ⑤ 새살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서구에서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유럽 사회를 바꾸어 놓은 세계사적 의의와 비교해서 한국의 금속 활자를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해결하기 위해 ㉓ 구텐베르크 인쇄술과 비교해서 ㉔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려고 한다.

구텐베르크 이전의 유럽 사회에서 서적은 일부 지식 권력층의 상징이었다. 그러다가 구텐베르크가 1450년대에 개발한 금속 활자 인쇄술의 등장으로 서적 간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서적의 대량 유통을 통한 지식의 확산은 유럽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던 권력은 그 권위를 잃게 되었다. 한편 성서를 읽는 것이 금기(禁忌)시 될 정도로 성서를 읽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되었던 예전과 달리 금속 활자 인쇄술 덕분에 성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유럽 사회에 널리 보급되었다. 성서의 대량 보급과 중산층들의 성서 읽기는 곧 가톨릭교회의 성서 해석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의 하락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유럽 사회를 근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직지심경」을 간행한 13, 14세기 고려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인쇄 상태로 보면 기술적 수준이 높지 않았다. 활자도 균일하지 못하고, 글자체도 아름답지 못했다. 다만 금속 활자가 개발된 이유는 몽고의 침입으로 서적이 없어지고, 중국으로부터의 서적 수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빠른 기간 내에 많은 종류의 서적을 간행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 때문이었다. 미숙했던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 인쇄술을 개선한 15세기 조선의 금속 인쇄술도 목판 인쇄를 완전하게 대체하지는 못했다. 적어도 중앙에서는 금속 활자를 이용하여 서적을 인쇄하였다. 국립출판소인 교서관에서 간행한 「유교경전」, 「자치통감」과 같은 역사서 등의 서적은 전적으로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 이러한 인쇄술의 활용으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의의는 조선의 유교 문화를 꽃피운 가장 큰 배경이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서적이 대량으로 인쇄되어 문민 정치를 펼쳤던 중앙 정부와 유교 지식으로 무장한 사대부에게 배포되었다. 조선 왕조는 민본적인 유교적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식인층인 사대부들을 길러내는 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고, 그럴수록 조선 사회는 학문과 교양 지식을 겸비한 사대부 지식인층이 지배하는 성숙한 유교 문화를 구축했던 것이다.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채 ㉕ 부정적인 견해만을 나타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유럽 사회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발명되었고, 종교 개혁과 과학 혁명을 낳은 일등 공신으로 유럽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유럽의 자본주의화라는 사회적 과정 없이는 인쇄술 탄생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대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14, 15세기 고려 말, 조선 초 우리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꽃을 피웠던 사회적 배경이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하던 유럽의 역사적 단계와는 달랐던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새로운 지배 계급으로서 사대부들의 유교적 이상 국가 건설이라는 역사적 변화를 낳은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시 말해 15세기 중엽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유럽의 근대화 과정을 만족시켰던 것처럼, 유교 문화를 꽃피운 한국의 금속 활자도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2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쇄술이 보급되기 전에는 성서는 일부 계층에게만 읽혔다.
- ② 조선 시대 인쇄술의 발달로 평민층까지 지식이 보급되었다.
- ③ 15세기 중반 이전의 유럽 사회는 가톨릭의 위세가 높았다.
- ④ 금속 활자 인쇄술은 유럽 사회를 근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조선 시대에는 출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 기관이 있었다.

21. 위 글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이 바르게 묶인 것은? [1점]

<보기>

- ㄱ. 잘못된 인식을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 ㄴ. 상반된 관점을 절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낸다.
- ㄷ. 다른 대상과 견주어 대상의 의의를 드러낸다.
- ㄹ.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논지를 뒷받침한다.
- ㅁ.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여 논지를 강화한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22. 위 글로 보아 ㉓, ㉔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근대화 과정을 촉진시켰다.
- ② 목판 인쇄술을 쇠퇴시켰다.
- ③ 종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 ④ 과학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 ⑤ 사회 변화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23. ㉕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상적인 결과만을 두고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 ②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다른 문화를 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③ 시대에 따라 대상이 지닌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④ 대상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 ⑤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민족의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어렵다.

## [24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나’는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염소를 키운다. 염주를 좋아하면서도 새로 전학 온 서울 아이에게도 관심을 보인다. 그러던 중 애써 돌보던 염소가 죽어버리자 고향을 떠나기로 작정한다.

나는 먼저 푸른 목장으로 갔다. 푸른 목장은 눈이 하얗게 덮여 ‘하얀 목장’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곳에서 은주와 두 번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산꼭대기를 향해 ‘은주야! 은주야!’하고 두 번 외쳤다. 이걸로 은주와의 인연도 끝이라고 속으로 단단히 결심했다.

푸른 목장과 관련해서 서울 아이에 대해선 털어 낼 추억이 따로 없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들국화를 꺾었던 자리를 발로 뒤적여 보았다. 그러나 눈이 많이 쌓여 있어 들국화가 피었던 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나는 들국화가 피었던 자리라고 어렵짐작 되는 곳의 눈 위에 아가 학교에서 책상 위에 새겼던 손가락으로 ‘사랑, 추억, 희망, 성공’이라고 새겼다. 이 눈 글씨가 지워지기 전에 고향을 떠나리라! 나는 각오가 대단했다. 염소를 늘 매어 놓던 자리를 발로 뒤적여 보았다. 염소가 누어 놓은 똥이 밟혔다. 발바닥에 밟히는 똥의 감촉만큼 단단한 아픔이 발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애써 발에 힘을 주어 똥을 비비듯 문질렀다.

(중략)

배가 고프다. 그러나 구리돈 한 닢조차 없으니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문득 담임 선생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했던 정신 교육 중 한 대목이 떠올랐다. 담임 선생님은 결곶하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며 서양 어느 아저씨의 말을 곧잘 들먹였다. 선생님은 마치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봐서 인생의 쓴맛을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 봤다. ‘눈물 젖은 빵이라도 먹어 본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두 끼 이상 배를 곯아 보지 않은 사람과는 아는 체도 하지 말라!’

물어 물어 부두를 다시 찾았다. 부두에서부터 더듬어 할머니의 딸 집을 찾을 요량이었다. 어제의 기억을 더듬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끼고, 다시 시장통을 지나, 부둣가에 있는 그 집. 희망이니 성공이니 하는 말은 이미 나의 노자와 함께 도둑 맞았다. 이제는 할머니의 딸 집을 찾는 것만이 희망이고 성공이었다. 점심 때가 거의 다 되었을 무렵, 드디어 그 집을 찾았다. **나그네 식당**이라는 관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거의 울 뻔했다. 할머니의 딸은 나를 보자마자 소리부터 질렀다.

“여기 자빠져 있다가 집에 다시 가라니께 말 안 듣고 기어 나가더니 하루새에 거지꼴을 해 갖고 들어왔구만. 세상에! 이 꼬라지 좀 봐.”

할머니의 딸은 내 머리통을 쥐어박았다. 그래도 나는 싫지 않았다. 말을 막하고 함부로 대해 주는 것이 오히려 편했다.

“저기 세숫대야 가져와라. 얼굴부터 좀 닦아야 밥 먹지. 그 꼬라지를 해 갖고 밥 먹을 수 있겠어?”

할머니 딸의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졌다. 식당 입구에 놓인 세숫대야를 들고 오자, 할머니의 딸이 물통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 주었다. 세숫대야에 손을 담갔다. 찬기가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그 물로 오래 얼굴을 닦았다. 점심을 먹으러 오는 아저씨들이 나를 훑어 훑어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들은 어쩌면 나에게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괜히 내가 그렇게 느낀 건지도 모른다.

나는 할머니의 딸이 푸지게 차려 준 밥을 맛있게 먹었다. 새 중에선 먹새가 제일 크대더니 먹는 게 이렇게 큰 일일 줄이야…….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자, 할머니의 딸은 그제서야 웃음을

머금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킴 나옴께 고생이야?”

“에…….”

나는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할머니는 이미 아침 배로 떠나고 없었다. 할머니의 딸은 내가 밥을 다 먹고 나자마자 나를 데리고 서둘러 부두로 갔다. 낮 배가 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딸은 나를 데리고 검표원에게 가더니 뭐라고 몇 마디 했다. 검표원과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았다. 검표원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를 보고 한 소리 했다.

“야, 이놈아, 생긴 값해라.”

할머니의 딸은 배를 타고 가면서 먹으라고 사랑까지 사 주었다. 나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으면서 사랑을 윗도리 주머니에 넣었다. 마침내 출발을 알리는 뿔뿔 소리가 울려 왔다. 나는 할머니의 딸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끝내 하지 못하고 말았다. ‘고향 아줌마, 안녕!’ 배에 올라타자 꼭 내 심정을 표현하기라도 하는 듯한 노래가 갑판 위 확성기에서 울려 퍼졌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 웃으려고 왔던가

울어 본다고 다시 오라 / 사나이의 첫 순정 / 그대와 들어서

희망에 울던 항구를 / 웃으며 돌아가려다 / 물새야 울어라

이제 나는 ‘선창’이라든가 ‘항구’라든가 ‘물새’라는 말들이 그 말 이상의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마음이 착잡했다. 돈을 잃어버렸으니 어디 가서 움치고 뉘 것인가. 갑자기 꽃치가 위대하게 여겨졌다. 그는 꽃 망태기 하나 짊어지고 세상 천지를 떠돌아도 밥을 굶지 않는다. 잠자리도 없지 않다. 동냥도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갈 때 설레던 마음은 오간 데 없고, 내 마음은 거의 패잔병의 기분으로 변하고 말았다. 패잔병의 기분이 되고 보자 배가 어디로 가는지 조차 관심이 없어 선실 한 구석에 아무 생각 없이 드러누워 있었다. 배가 출렁이는 대로 내 몸도 같이 출렁거렸다. 배의 속도감이 떨어지는 게 싫더니 배가 제자리에서 횡 도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선실을 나와 갑판으로 갔다. 마침내 배가 고향 땅에 닿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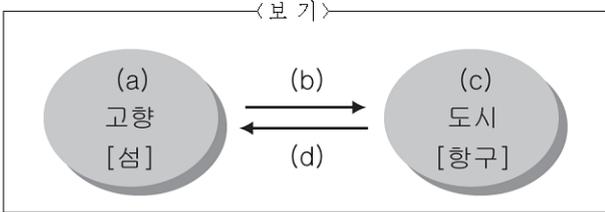
그러나 내겐 읍내로 들어가는 차를 탈 차비도 없었다. 배에서 내린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를 부두 가까이 대 놓고 서서 차비를 받는 차장에게 떼를 써서 공짜 차를 타 볼까 하다가, 차장의 인상이 하도 험악해서 그냥 걷기로 했다. 올 때와는 달리 시간을 맞춰서 가야 할 이유도 없었으니까. 할머니의 딸이 사 준 **사랑**이 윗도리 주머니에 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손에 사랑 봉지가 잡혔다. 그런 다음 걷기 시작했다. 거기서 읍까지 십 리, 읍에서 집까지 다시 시오 리였다.

저녁밥을 막 먹었을 시간쯤 해서 마을에 들어섰다. 그러나 꽃치처럼 노래를 부르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다행히 겨울이라 나다니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모르게 우리 집까지 갈 수 있었다. 사립 안쪽을 쳐다보니 마당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살금살금 걸어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부모님에게 써 놓은 ㉠ 편지는 치워지고 없었다. 그런데 방바닥이 따뜻했다. 내가 없어도 어머니는 내 방에 군불을 때 놓은 것이다. 나는 이불을 펴 세도 없이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긴 잠이었다.

다음 날 눈을 떠 보니, 내 머리맡에 어머니가 근심스런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투명한 햇살이 방문에 비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는 것이고, 내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끈적거렸다는 것이다.

- 박상률, 「봄바람」 -

24. <보기>는 위 글의 공간적 배경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a)는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다.
- ② (b)는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된다.
- ③ (c)는 희망과 좌절의 이중성을 띠고 있다.
- ④ (d)는 새 삶에 대한 의욕을 다지는 과정이다.
- ⑤ (c)를 거친 (a)는 새로운 의미의 공간이다.

25. 위 글을 감상하기 위하여 협동 학습을 하였다. 조별로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조 : 우리 조에서는 작품에 드러난 시점을 살펴봄으로써 주인공의 심정을 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 ② 2조 : 우리 조는 인물들의 대화에 나타난 방언을 살펴봄으로써 방언이 주는 생생한 현장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③ 3조 : 우리 조는 노래 가사를 분석하여 주인공의 가솔 동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 ④ 4조 : 우리 조는 주변 인물들의 주인공에 대한 행동이나 말을 살펴봄으로써 소설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껴 볼 수 있었습니다.
- ⑤ 5조 : 우리 조는 '꽃치'라는 인물의 역할에 주목하여 그와 대비되는 주인공의 처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2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보기>

성장 소설이란 주인공이 자아를 의식하고 외부 세계와 접촉하거나 대결을 해 나가는 중에 그의 자아가 성장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다. 가령, 주인공이 첫발을 내딛고 절한 사회의 실상에 놀라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깎질을 깨고 바깥 세계로 나온 새'처럼 고통의 판문을 통과하여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 ① 푸른 목장                      ② 나그네 식당                      ③ 눈물
- ④ 사탕                              ⑤ 뜨거운 것

27. '나'의 성격을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주와의 추억을 떨치고 떠나는 것으로 보아 결단력이 있군.
- ②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성격이군.
- ③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되뇌는 것으로 보아 소심한 편이군.
- ④ 담임 선생님의 말에 반발하는 것으로 보아 어른들의 생각을 쉽게 수용하지 않는 면이 있군.
- ⑤ 할머니의 딸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처지 때문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이중적 성격이군.

28. [A]에 근거하여 ㉠을 유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모님 전 상서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세요.  
 오늘 집을 떠나며 몇 자 올립니다.  
 ㉠제 나름대로 목장에서 염소를 키우며  
 꿈을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염소  
 도 죽고 여자 친구라도 잘 되지 않아  
 여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막상 떠나  
 려고 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아하던 친구의 얼굴이며 염소와의  
 추억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한편  
 으른 지긋지긋한 목장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후련합니다. 꼭 성공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들 훈필 올림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을 지닌 플라스틱은 당구 공으로 쓸 상아의 대용품을 찾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합성수지 플라스틱은 페놀과 포르말린을 반응시켜 만든 것인데, 1909년 벨기에 출신 리오 베이클랜드가 전기 공업에 꼭 필요한 물건인 새로운 절연체를 찾던 과정에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탄생한 플라스틱은 그 종류가 매우 많은 뿐만 아니라 쓰임새 또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금속보다 가볍고 가공이 쉬운 반면에, 열에 약하고 무른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의 이용 분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 다양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우리의 선입견이 깨어지고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에 유리 섬유, 탄소 등이 첨가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본래의 플라스틱이 지닌 우수한 성형성과 가공성에도 내열성, 내충격성까지 겸비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열에 강하고 총탄도 뚫을 수 없을 만큼 강해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금속이나 세라믹 등의 다른 재료들을 대체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플라스틱은 이제 종이를 대신할 수도 있다. 몇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화폐가 개발되었고, 중국 등 여러 나라들에서는 플라스틱 화폐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플라스틱 화폐가 개발되고 있는 이유는 종이 화폐보다 사용 연한이 몇 배나 더 길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인 일명 전도성 고분자 재료 플라스틱이 등장하였다. 이 플라스틱은 아주 가벼운 초경량 전지나 자동차의 무게를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고, 전도성을 지닌 새로운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응용되고 있다. 앞으로 이 기술을 통해 종이처럼 들들 말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형성이 뛰어난 텔레비전 화면이나 컴퓨터의 모니터가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전도성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얇은 ㉠ 필름 형태의 스피커를 개발하였다.

휴먼 로봇의 촉각 센서나 가속도 센서와 같은 정밀한 센서, 혹은 어군 탐지·의료용 진단 촬영 장비와 같은 초음파 탐지 장치, 전자저울, 도난 경보기 등처럼 전도성 플라스틱이 활용될 수 있는 첨단 장치는 많다. 빛을 흡수하면서 변하는 성질을 지닌 스마트 윈도는 바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스마트 윈도는 맑은 날이나 여름철에 창문을 어둡게 해서 빛을 차단하여 냉방 효과를 내고, 겨울철이나 흐린 날에는 창문을 투명하게 하여 실내 온도를 높이고 밝게 해 준다.

첨단의 플라스틱일지라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색이 많은 성질로 인하여 플라스틱은 현재 적지 않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나 광분해성 플라스틱이다. 이 플라스틱은 기존의 플라스틱에 비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 아직은 가격이 비싸 실용화에 어려움이 많다. 아울러, 플라스틱 원료로 쓰이는 석유나 천연 가스 같은 화석 연료들이 무한한 자원은 아니라는 문제점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물 공학을 응용한 방법이 널리 연구되고 있다. 미국의 한 거대 생물 공학 기업에서는 ㉡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식물에 이식하여, 이 식물들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장균과 같은 세균을 이용하여 색이 짙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2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보통의 플라스틱은 열에 약하고 무르다.
- ② 세라믹보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충격에 강하다.
- ③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있다.
- ④ 플라스틱 화폐는 개발 비용이 비싸 경제성이 떨어진다.
- ⑤ 새로운 플라스틱의 개발에 생물 공학이 응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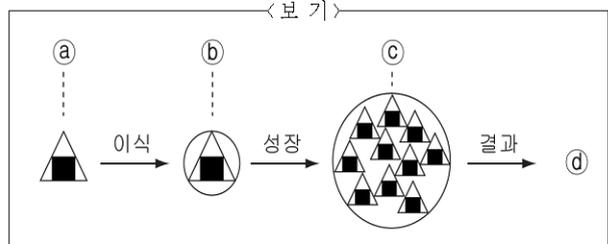
30. 위 글의 심화 학습 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 상	학 습 과 제
① 합성수지 플라스틱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
②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어떤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까?
③ 플라스틱 화폐	어떤 원리로 만드는 것일까?
④ 스마트 윈도	어떤 종류의 빛에 반응하는 것일까?
⑤ 광분해성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어떻게 다른가?

31. ㉠의 광고 문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항목으로 묶은 것은? [1점]

- ① 부패성, 경량성
- ② 성형성, 경량성
- ③ 경량성, 탄력성
- ④ 탄력성, 성형성
- ⑤ 전도성, 부패성

32. <보기>는 ㉡을 도식화한 것이다.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3점]



- ① ㉡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박테리아 유전자이다.
- ② ㉢는 식물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를 이식한 것이다.
- ③ ㉢는 식물의 성장에 따라 플라스틱 인자가 증식한 것이다.
- ④ ㉣는 수명이 긴 식물이 만들어진 단계이다.
- ⑤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추출되는 것은 플라스틱이다.

[33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외래어는 받아들인 쪽의 말 체계뿐만 아니라 그 말을 쓰는 사람의 의식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언어는 그 말을 사용하는 겨레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외래어가 들어와서 원래 있던 토박이 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과정은 단지 원래 있던 뜻을 다른 소리로 부르게 되는 차원이 아니라 뜻과 소리 두 면에서 전혀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쌀’ 대신에 ‘라이스’(rice)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얼핏 생각하면, ‘쌀’이 가지고 있던 뜻은 그대로 남고 소리만 [A] [s'al]에서 [rais]로 바뀐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라이스’는 ‘쌀’이 가지고 있던 소리와 뜻뿐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던 우리 겨레의 삶과 관련된 많은 부분도 변해 가는 것이다.

외래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어휘 체계에서 외래어를 하루아침에 쓸어내 버리고 토박이 말만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한 겨레만의 삶이 불가능하듯이, 어느 시대 어떤 말도 다른 말과의 접촉 없이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말이란 끊임없이 다른 말과 접촉하고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세상의 모든 개념과 사물을 완벽하게 망라할 수 있는 어휘 체계를 갖춘 말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어떤 개념을 표현할 적절한 어휘가 없고 그렇다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기도 쉽지 않을 때에는 가장 적당한 외래어를 빌려 와서 우리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차선책이 되는 것이다.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물건이 들어올 때 그 이름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 좋은 보기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외래어를 사용할 때에 정말 절박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종의 문화 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외래어 수용 태도는 우리말에 두 가지 방식으로 큰 손상을 주게 된다. 하나는 이미 있던 우리말 어휘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래어가 우리말 어휘와 계층 관계를 형성하여 더 품위 있고 고상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강(江)-가람’, ‘성(城)-갯’ 등이 앞의 예라면, ‘치아(齒牙)-이(빨)’, ‘밀크-우유-소젖’은 뒤의 예이다. 이런 식의 외래어 수용 태도 때문에, 고유 어휘는 점점 힘을 잃고 사라져 가거나 비천한 지위로 ㉠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은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고 그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말보다는 외국어를 더 자주 쓰게 되고, 그 와중에 우리말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희망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근래에 와서 일본식 한자어나 외래어의 남용을 경계하고 고유어를 살려 쓰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잊혀가는 옛말을 되살리거나 다듬는 작업을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이미 그 결과물들이 속속 나와 실제 말글살이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학술 용어를 포함한 전문 분야의 용어를 고유어 식으로 짓거나 바꾸어 가는 경향은 우리말의 세계를 알차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겨레로 하여금 문화와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33. 집필 의도를 고려할 때, <보기>에서 위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 < 보 기 —

민수 : 난, 이 글을 읽고 그동안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사용했던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

수영 : 국가 간의 교류가 확대된 탓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말을 살려 쓰려는 노력도 부족했어.

영진 : 나는 우리말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의 의식이 더 문제라고 봐.

진호 : 외국어를 쓰면 뭔가 더 근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 의식 속에 있는 것 같아.

호철 :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 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잖아.

- ① 민수    ② 수영    ③ 영진    ④ 진호    ⑤ 호철

34. [A]에 전체되어 있는 글쓴이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② 언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 ③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 체계이다.
- ④ 새롭게 탄생된 말은 옛말보다 세력이 강하다.
- ⑤ 발음의 편의성에 의해 언어의 수명이 결정된다.

35.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얼굴 - 낯
- ② 노건 - 갯길
- ③ 서클 - 동아리
- ④ 나시 - 민소매
- ⑤ 교수부지 - 문치

36.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그는 입사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 ② 그는 오랫동안 그녀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
- ③ 그 회사는 기술력이 떨어져 경쟁에서 뒤처졌다.
- ④ 주식 투자에서 그에게 떨어진 것은 본전뿐이었다.
- ⑤ 비속어를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의 품격이 떨어진다.

[37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지리 가지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지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티(太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호고  
 브리고 가지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티(太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논논  
 선헌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티(太平盛代)

셜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논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티(太平盛代)

- 작자 미상, 「가지리」 -

(나)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넛산 바라보니 거머핍들\*\*  
 서 있거늘 저야 님이로다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꼼비꼼비 님비꼼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 가  
 리지 말고 워령충창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 하고 결눈을  
 흘깃 보니 상년(上年)\*\*\* 질월 사흔날 값아 벗긴 주추리  
 삼대\*\*\*\* 살뜰이도 날 속엿고나

모처라 밤일세망정 행여 낮이런들 남 웃길 뻔 하래라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하고 :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거머핍들 : 검은 듯, 흰 듯한 것  
 \*\*\*상년(上年) : 지난해  
 \*\*\*\*주추리 삼대 : 발머리에 문 삼의 줄기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다) 구두 수선을 주었더니, 뒤축에다가 어지간히는 큰 징을 한  
 개씩 박아 놓았다. 보기가 흉해서 빼어 버리라고 하였더니, 그런  
 징이래야 한동안 신게 되고, 무엇이 어찌구 하며 수다를 피는 소  
 리가 듣기 싫어, 그대로 신기는 신었으나, 점잖지 못하게 저벅저  
 벅 그 징이 땅바닥에 부딪치는 금속성 소리가 심히 귀맛에 역했  
 다. 더욱이 시멘트 포도(鋪道)의 단단한 바닥에 부딪쳐 낼 때의  
 그 음향이랄 정말 질색이었다. 또그닥또그닥 - 이진 흡사 사람  
 은 아닌 말발굽 소리다.

어느 날 초어스름이었다. 좀 바쁜 일이 있어 창경원 결 담을  
 끼고 걸어 내려오느라니까 앞에서 걸어가던 이십 내외의 어떤  
 한 젊은 여자가 이 이상하게 또그닥거리는 ㉠구두 소리에 안심  
 이 되지 않는 모양으로 슬쩍 고개를 돌려 또그닥 소리의 주인공  
 을 물색하고 나더니 별안간 걸음이 빨라진다.

그러는 걸 나는 그저 그러는가 보다 하고 내가 걸어야 할 길  
 만 그대로 걷고 있었다니, 얼마큼 가다가 이 여자는 또 뒤를 한

번 힐끗 돌아다본다. 그리고 자기와 나와의 거리가 불과 지척 사  
 이임을 알고는 빨라지는 걸음이 보통이 아니었다. 뛰다 싶은 걸  
 음으로 치맛귀가 용이하게 내닫는다. 나의 그 또그닥거리는 구두  
 소리는 분명 자기를 위협하노라고 일부러 그렇게 딱딱딱 땅바닥  
 을 박아내며 걷는 줄로만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여자더러 내 구두 소리는 그건 자연이요, 고의가 아  
 니니 안심하라고 일러 드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여서 가  
 야 할 길을 아니 갈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나는 그 순간 좀 더  
 걸음을 빨리하여 이 여자를 뒤로 떨어트림으로 공포에의 안심을  
 주려고 한층 더 걸음에 박차를 가했더니, 그럴 게 아니었다. 도  
 리어 이것이 이 여자로 하여금 위협이 되는 것이었다.

내 구두 소리가 또그닥또그닥 좀 더 빨라지자, 이에 호응하여  
 또각또각 굽 높은 뒤축이 어쩔 바를 모르고 걸음과 싸우며, 유난  
 히도 몸을 일어 내는 그 분주함이란 있는 마력은 다 내 보는 동  
 작에 틀림없었다. 그리하여 또그닥또그닥, 또각또각, 한참 석양  
 노을이 내려 비치기 시작하는 인적 드문 포도 위에서 이 두 음  
 향의 속 모르는 싸움은 자못 그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나는 이  
 여자의 뒤를 거의 다 따랐던 것이다. 2, 3보만 더 내어 디디면  
 앞으로 나서게 될 그럴 계제였다. 그러나 이 여자 역시 힘을 다  
 하는 걸음이었다. 그 2, 3보(步)라는 것도 그리 용이히 따라지지  
 않았다. 한참 내 발부리에도 풍진(風塵)이 일었는데, 거기서 이  
 여자는 뚫어진 옆 골목으로 살짝 빠져 들어선다. 다행한 일이었  
 다. 한숨이 나간다. 이 여자도 한숨이 나갔을 것이다.

기웃해 보니, 기다랗게 내뚫린 골목으로 이 여자는 횡하니  
 내닫는다. 이 골목 안이 저의 집인지, 혹은 나를 피하노라고  
 빠져 들어갔는지 그것은 알 바 없으나, 나로서는 이 여자가 나  
 를 불쌍배로 영원히 알고 있을 것임이 서글픈 일이다.

[A] 여자는 왜 그리 남자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 여자를 대하자  
 면 남자는 구두 소리에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점잖다  
 는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라면 이진 이성에 대한 모욕이 아  
 닐까 생각을 하며, 나는 그 다음으로 그 구두 징을 뽑아 버렸  
 거니와 살아가노라하면 별(別)한데다가 다 신경을 써 가며 살  
 아야 되는 것이 사람임을 알았다.

- 계몽록, 「구두」 -

37.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와 (나)에서는 오해의 상황이 드러난다.
- ② (나)와 (다)에서는 서사적 성격이 드러난다.
- ③ (가)에는 애상감이, (나)에는 해학성이 두드러진다.
- ④ (나)에는 속도감이, (다)에는 긴박감이 두드러진다.
- ⑤ (나)에는 의태어가, (다)에는 의성어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38. <보기>의 화자가 (가)의 화자 '갑'과 (나)의 화자 '을'에게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로다나.  
이시라 하더면 가라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 ① 당신[갑]이 입과 이별하여 오랫동안 기다리는 처지는 나와 다를 바가 없네요.
- ② 입을 보내놓고 후회하지 말고, 당신[갑]과 함께 있자고 얘기해 보세요.
- ③ 자기 심정을 행동으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당신[을]이 부럽군요.
- ④ 당신[을]이 하고자 했던 '정옛말'이 내가 입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 ⑤ 애태우며 입을 생각하는 우리의 처지가 참 안타깝군요.

39. [A]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에 대해 독자의 입장에서 제기한 의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왜 남자 대 여자의 이분법적 관계로만 생각하세요?
- ② 구두 짱을 뽑느니 새 구두를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③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나요?
- ④ 상황으로 볼 때, '여자'의 행동이 이해될 수 있지 않나요?
- ⑤ 때로는 사소한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40. (다)의 필자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사례는? [1점]

- ① 늦잠을 자서 시간이 없는데 버스까지 고장이 났지 뭐야.
- ② 책상 바로 밑에 있는 가방을 찾지 못해서 집 안 전체를 뒤졌네.
- ③ 어제 다룬 친구와 수행평가에서 같은 조가 되어 발표까지 함께 맡았어.
- ④ 차가 너무 막혀서 언제쯤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지 도무지 모르겠네.
- ⑤ 무심코 입을 벌렸는데 어른 앞에서 하품했다고 할머니께 핀잔을 들었어.

41. (나)의 시어 중, (다)의 ㉠과 기능이 유사한 것은? [1점]

- ① 남
- ② 저녁밥
- ③ 버선
- ④ 주추리 삼대
- ⑤ 남

[42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84년 길거리 공연가 몇 사람이 모여 설립한 캐나다 최대 문화 산업 기업인 솔레이유의 공연 작품은 세계 90여 개 도시에서 4천만 명이 관람했다. 이 회사는 서커스 업계에서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는 베일리가 100년 이상 걸려 달성한 수입 규모를 20년도 채 안 걸려 ㉠ 벌어들였다. 주목할 것은 솔레이유의 급속한 성장이 잠재 성장력이 한계에 달한 사양 산업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솔레이유는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시장에서 경쟁자의 고객을 빼앗는 방법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다. 경쟁과 무관한 미개척 시장 공간을 새로 개발하여 참신한 엔터테인먼트로 전통 서커스 공연보다 몇 배나 비싼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새로운 고객들의 마음을 ㉡ 사로잡았다. 솔레이유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쟁을 멈춰야 성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자를 이기려는 노력을 ㉢ 그만두는 것이다. 즉 솔레이유는 레드오션(Red ocean) 전략이 아니라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으로 승부한 것이다.

레드오션은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뜻하며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 공간이다. ㉣ 블루오션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산업을 나타내는 미지의 시장 공간이다. 레드오션에서는 산업 간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고 경영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 게임의 규칙 또한 알고 있다. 기업들은 기존 수요에서 보다 큰 점유율을 얻기 위해 경쟁자를 능가하려 ㉤ 애쓴다. 시장 참가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익과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진다. 애써 개발한 상품은 흔한 일상품이 되고 목을 죄는 경쟁으로 시장은 유희의 바다로 변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블루오션은 미개척 시장 공간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과 고수익 성장을 향한 기회로 정의된다. 블루오션은 기존 산업의 경계선 밖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출되기도 하고 기존 산업을 확장하여 만들기도 한다. 블루오션에서는 게임의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과는 무관하다.

레드오션에서는 경쟁자를 능가하기 위해 붉은 바다를 잘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대부분 산업의 경우, 축소되는 시장 공간에서 점유율 경쟁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높은 실적을 내기는 어렵다. ㉥ 기업은 이러한 한계를 ㉦ 뛰어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익과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블루오션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블루오션은 향해 지도에 잘 나타나 있지 않다. 지난 20년간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 기업의 경영 전략 포커스는 경쟁을 바탕으로 한 레드오션이었다. 그 결과, 우리는 경제 구조 분석에서부터 원가 절감, 품질의 차별화, 경쟁자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 효과적인 기술로 레드오션에서 경쟁하는 방법을 배워 왔다. 블루오션 창출은 가치 혁신의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실제 전략으로 추구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커서 단순히 희망 사항으로만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블루오션이란 용어는 분명 새로운 것이지만 블루오션 자체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전략적 사고의 최우선 초점은 레드오션 전략이었다. 이제는 레드오션이나 블루오션이나 결론을 내려야 한다. 세계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경쟁사를 이기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시장 경쟁에서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공간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세계의 탁월한 힘을 발휘해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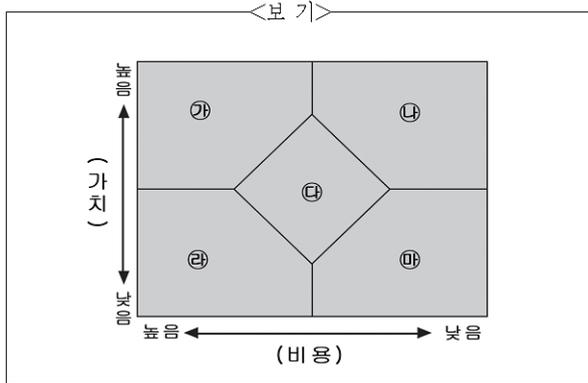
42.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레드오션         | 블루오션       |
| ① 베일리        | 솔레이유       |
| ② 공급 과잉      | 수요 창출      |
| ③ 협력 위주      | 경쟁 위주      |
| ④ 기존 시장      | 신시장 개척     |
| ⑤ 산업간 경계선 명확 | 산업간 경계선 해체 |

43.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백화점에서 경품을 제공하여 판매율을 높였다.
- ② 구조 조정을 한 결과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 ③ 기업이 원자재를 직거래하여 원가를 절감하였다.
- ④ 발상의 전환으로 장수풍뎅이의 상품화에 성공하였다.
- ⑤ 기능이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였다.

44. 위 글에서 설명한 경영 전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의 기업이 선택해야 할 영역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위 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블루오션은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경영 전략이군.
- ② 기업이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군.
- ③ 시간이 지나면 블루오션도 레드오션으로 바뀔 수 있겠군.
- ④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블루오션도 외면당할 수 있겠군.
- ⑤ 블루오션의 초기에는 해당 영역의 시장을 독차지할 수 있겠군.

46. ㉠~㉣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로 알맞은 것은? [1점]

<보기>

합성어 중에는 '목적어+서술어'의 구조로 된 것들이 있다.  
(예) 인정을(목적어)+받다(서술어) ⇒ '인정받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7 ~ 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글자\*에게 예덕 선생이라 부르는 벗이 한 사람 있다. 그는 중본탑 동쪽에 살면서 날마다 마을 안의 땅을 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지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를 그를 엄 행수라 불렀다. '행수'란 막일꾼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대한 칭호요, '엄'은 그의 성이다.

자목이 선글자에게 따져 물기를,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벗의 도를 들었는데, '벗이란 함께 살지 않는 아내요 찢줄을 같이 하지 않은 아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벗이란 이같이 소중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이름난 사대부들이 선생님을 따라 그 ㉠아랫자리에서 노닐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지만 선생님께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엄 행수라는 자는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막일꾼으로서 열악한 곳에 살면서 남들이 치욕으로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선생님께서는 자주 그의 덕을 칭송하여 선생이라 부르는 동시에 장차 그와 교분을 맺고 벗하기를 청할 것같이 하시니 제자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러하오니 문하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니, 선글자가 웃으면서,

"앉아라. 내가 너에게 벗을 사귀는 것에 대해 말해 주마. 속담에 '의원이 제 병 못 고치고 무당이 제 굿 못 한다.' 했다. 사람마다 자기가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남들이 몰라 주면, 답답해하면서 자신의 ㉢현물에 대해 듣고 싶은 체한다. 그럴 때 예찬만 늘어놓는다면 아침에 가까워 무미건조하게 되고, 단점만 늘어놓는다면 잘못을 파헤치는 것 같이 무정하게 보인다. 따라서 잘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렁뚱땅 변죽만 울리고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크게 책망하더라도 화를 내지는 않을 것이니, 상대방의 꺼림칙한 곳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비슷한 물건을 늘어놓고 숨긴 것을 알아맞히듯이 자신이 잘한다고 여기는 것을 은근 슬쩍 언급한다면, 마치 가려운 데를 긁어 준 것처럼 진심으로 감동할 것이다.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 것에도 방법이 있다. 등을 토닥일 때는 겨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어루만질 때는 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뜯구름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결국 자신에 대한 ㉣칭찬이 들어 있다면, 뿔 듯이 기뻐하며 자신을 알아준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벗을 사귀다면 좋겠느냐?"

하였다. 자목은 귀를 막고 뒷걸음질 치며 말하기를,

"지금 선생님께서는 시정잡배나 하인 놈들이 하는 짓거리를 가지고 저를 가르치려 하시는군요."

하니, 선글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전자에는 있지 않고 후자에만 있구나. 무릇 시장에서는 이해관계로 사람을 사귀고 면전에서 ㉤안철로 사람을 사귀지. 따라서 아무리 목은 원한이 있다 하더라도 세 번 도와 주면 누구나 친하게 되기 마련이지. 그러므로 이해관계로 사귀게 되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침으로 사귀어도 오래갈 수 없다네. 훌륭한 사귀는 꼭 얼굴을 마주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훌륭한 벗은 꼭 가까이 두고 지낼 필요가 없지. 다만 마음으로 사귀고 덕으로 벗하면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도의로 사귀는 것일세. ㉦위로 천고(千古)의 옛 사람과 벗해도 먼 것이 아니요, 만리나 떨어져 있는 사람과 사귀어도 먼 것이 아니라네.

저 엄 행수란 사람은 일찍이 나에게 알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항상 그를 예찬하고 싶어 못 견뎠지. 그는 밥을

먹을 때는 끼니마다 착실히 먹고 길을 걸을 때는 조심스레 걷고 졸음이 오면 푹푹 자고 웃을 때는 곱곶 웃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마치 바보처럼 보인다네. 흠뻑을 쌓아 풀로 덮은 음막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고 틀어갈 때는 새우 등을 하고 틀어가고 잘 때는 개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자지만 아침이면 개운하게 일어나 삼태기를 지고 마을로 들어와 뒷간을 청소하지. 구월에 서리가 내리고 시월에 엷은 얼음이 얼 때쯤이면 뒷간에 말라붙은 사람 똥, 마구간의 말 똥, 외양간의 소 똥, 해 위의 닭 똥, 개 똥, 거위 똥, 돼지 똥, 비둘기 똥, 토끼 똥, 참새 똥을 주욱인 양 긁어 가도 염치에 손상이 가지 않고, 그 이익을 독차지하여도 의로움에는 해가 되지 않으며, 욕심을 부려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해도 남들이 양보심 없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네. 그는 손바닥에 침을 발라 삼을 잡고는 새가 모이를 쪼아 먹듯 꾸부정히 허리를 구부려 일에만 열중할 뿐, 아무리 화려한 미관이라도 마음에 두지 않고 아무리 좋은 풍악이라도 판심을 두는 법이 없지. 부귀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바라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지. 따라서 그에 대한 예찬을 한다고 해서 더 영예로운 것도 없으며 험뜯는다 해서 욕될 것도 없다네.

왕십리의 무와 살갓이의 순무, 석교의 가지, 오이, 수박, 호박이며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며 청파의 미나리와 이태인의 토란들은 상상전\*\*에 심는데, 모두 엄 씨의 똥을 가져다 써야 땅이 비옥해지고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으며, 그 수입이 일 년에 육천 냥이나 된다네. 하지만 그는 아침에 밥 한 사발이면 의기가 흠족해지고 저녁이 되어야 다시 한 사발 먹을 뿐이지. 남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였더니 목구멍에 넘어가면 푸성귀나 고기나 배를 채우기는 마찬가지인데 맛을 따져 무엇 하겠느냐고 대꾸하고, 반반한 옷이나 줄 입으라고 권하였더니 넓은 소매를 입으면 몸에 익숙하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더러운 흠을 짚어질 수 없다고 하더군. 해마다 정월 초하루 아침이나 되어야 비로소 의관을 갖추어 입고 이웃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세배를 하는데 세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현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삼태기를 메고 마을 안으로 들어간다네. 엄 행수와 같은 이는 아마도 자신의 덕을 ㉠ 더러움으로 감추고 세속에 숨어 사는 대은\*\*\*이라 할 수 있겠지.”

- 박지원,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 -

- \* 선글자(鱗鱒子) : 이덕무의 호
- \*\* 상상전(上上田) : 최상급의 토지
- \*\*\* 대은(大隱) : 한나라 동방삭이나 위진의 죽림칠현과 같은 인물

47. '선글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권위를 내세워 허물을 감추고 있다.
  - ② 상대에 대한 신뢰감을 보이며 설득하고 있다.
  - ③ 남들의 판단을 근거로 자신을 이해시키고 있다.
  - ④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⑤ 예화를 들어 상대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고 있다.
48. '엄 행수'에 대한 '선글자'의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행실이 도의에 어긋나지 않다.
  - ② 형식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한다.
  - ③ 사는 집이 분수에 넘치지 않는다.
  - ④ 존경받을 만한 인품을 갖고 있다.
  - ⑤ 실속보다는 맛을 따져 음식을 먹는다.

49. ㉠과 유사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 ①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녀던 길 앞에 있네  
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녀고 어쩔고
  - ② 재 너머 성권농 집의 술 너단 말 어제 듯고  
누은 소 발로 박차 언치노하 지줄 타고  
아해야, 네 권농 겨시나 정좌수 왔다 하여라
  - ③ 높으나 높은 나무에 날 권하여 올려 두고  
여보오 벗님네야 흔들지나 말려므나  
나려서 죽기는 설지 아녀도 님 못 불가 하노라
  - ④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의 광명이 너만 한 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 ⑤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모름이 좋아라

50. ㉠ ~ ㉣ 중, ㉠에 해당하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51. <보기>는 위 글과 관련하여 인터넷 학습 게시판에 올라 온 글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보 기 >

<b>OO고등학교</b>	<b>HIGH SCHOOL</b>
진학정보실	내신성적선출
대학정보자료실	온라인보로서
대학정보발령희	복지보내기
개인일정	개인홈페이지
회원가입	HOME

▶ **나도 한마디**

23	● <예덕선생전>을 읽고.....	올린이 [ID:곰돌이]
<예덕선생전>을 재미있게 읽었어요. 우리 고전 소설의 주인공은 신분이 높고 재주가 많은 인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천한 신분의 '엄 행수'를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작자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Pe:	●●● 답변	
[A]		

- ① 비참한 생활을 하는 주인공을 통해 하층민의 생활상을 그려려고 했어요.
- ② 가난한 주인공을 통해 환경에 따라 인간의 본성이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지요.
- ③ 낯은일을 하더라도 양반 못지않은 신분상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지요.
- ④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간상을 보여줌으로써 하층민들의 신분 상승 욕구를 대변하려고 하고 있어요.
- ⑤ 주인공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양반들의 가식적인 행동과 의식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려고 한 것이지요.

[52 ~ 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만화는 영상 문화 시대에 '문화의 끝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문화 산업 시대에 만화가 문화 생산, 이미지 생산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화의 어떤 특성이 이러한 역할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사람들이 만화를 즐겨 보는 이유는 우선 재미있다는 점이다. '한 번 손에 쥐면 먹고 자는 일도 귀찮아지는 책'이 만화이다. 만화에는 사람을 폭 빠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그를 통해 만화는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 남는다. 「칸, 페이지, 이야기」의 저자 베노와 페터즈에 따르면 누구나 자기 기억 속에 한 개 이상 '있을 수 없는 만화의 칸' 혹은 '있을 수 없는 장면'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 그림은 실제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이 만들어 내거나 변형한 그림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만화의 이미지가 어떻게 우리의 기억 속에 갈무리되는지를 말해 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또한, 독자들이 만화를 ㉡ 좋아하는 이유는 가볍다는 점이다. 무거운 만화도 있으나 대체로 만화는 낙서같이 자유롭다. 이러한 자유는 만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독자들은 만화를 읽으면서 주류 문화의 권위나 엄숙성을 뛰어넘어 즐거움과 해방감을 느낀다. 유머와 상상은 저항과 전복의 주요한 수단이다. 환상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것, 기상천외하고 극단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 극화 만화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이성의 해방이자, 일탈과 저항의 기능을 갖는다.

만화는 특유의 팬덤(fandom) 문화를 형성한다. 팬덤 문화는 주류 언론에 맞서 싸우는 팬들의 '권리 되찾기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만화를 하나의 대중문화로서 독자들이 즐겨 본다는 사실은 ㉢ 가별게 볼 일이 아니다. 만화 독자들은 그들 고유의 팬덤과 마니아의 세계가 있으며, 숭배하고 열광하며 비평하는 나름의 방식을 갖고 있다. 코스프레(cosplay)\* 등에서 보듯이 만화 독자들은 적극적으로 문화를 형성하는데 참여한다. 다시 말해, 만화는 다른 어떤 장르보다 작가와 독자 사이에 주고받는 쌍방 소통적 요소가 중요하며, 팬덤과 마니아의 정서가 활발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때문에 미디어 이론가 마셜 맥루한은 만화를 텔레비전과 더불어 '쿨 미디어(Cool Media)'의 하나로 정의한다.

위에서 말한 만화의 특성은 사실 만화를 보고 즐기는 방식의 특징이지, 만화 그 자체의 매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만화의 근원적인 매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만화가 갖고 있는 '칸과 칸 사이의 관계'와 '만화 작가의 독특한 회화적 표현'이다. 만화 독자는 대개 각 칸을 따라 시선을 이동하지만, 사실 만화에 의해 촉발된 독자의 상상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칸과 칸 사이의 여백이다. 독자는 하나의 칸과 다음 칸 사이의 틈에서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장면의 상호 관련성을 통해 생략된 내용을 ㉤ 잡아내고 음미하면서 사건이나 이미지를 형성한다. 또한 만화는 한 쪽이나 양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놉티콘(panopticon)\*\*과 같은 시각 장치를 가진 형식이다. 만화 작가가 다 혹은 작품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개성은 작품에 담긴 그래픽이나 회화적 표현과 ㉥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코스프레(cosplay) : 만화나 게임의 캐릭터를 모방하는 취미 문화  
 \*\*파놉티콘(panopticon) : 한곳에서 내부가 전부 보이는 원형 교도소

52. 위 글은 궁극적으로 어떤 물음에 답하는 글인가?

- ① 만화의 고유한 속성은 무엇인가?
- ② 만화에서 독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 ③ 만화는 어떻게 수용자에게 이해되는가?
- ④ 어떤 만화가 대중의 인기를 끌 수 있는가?
- ⑤ 만화에서 회화적 요소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53.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를 보고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화가 지닌 가벼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군.
- ②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각적 효과도 느껴지는군.
- ③ 칸과 칸 사이에서 독자의 상상은 배제되고 있군.
- ④ 짧은 내용 속에서도 재치 있는 유머가 느껴지는군.
- ⑤ 문자에 나타난 그래픽이 의미 전달에 기여하고 있군.

54.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작가가 불합리한 비평에 적극 대처하므로
- ② 만화는 독자의 참여가 많은 미디어이므로
- ③ 만화는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기 쉬우므로
- ④ 만화는 수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미디어이므로
- ⑤ 만화 작가는 팬들의 비평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55. ㉠ ~ ㉥와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1점]

- ① ㉠ : 각인(刻印)된다
- ② ㉡ : 선호(選好)하는
- ③ ㉢ : 경도(傾倒)해선
- ④ ㉣ : 포착(捕捉)하고
- ⑤ ㉥ : 분리(分離)하여

[56 ~ 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비꽃, 진달래, 달맞이꽃, 보춘화는 꽃이 피는 시기가 이름에 반영된 꽃들이다. 우리나라 전역의 산에 자생하는 제비꽃은 제비가 돌아올 무렵에 핀다고 하여 불인 이름이며, 진달래는 꽃이 필 무렵이면 어김없이 두견새가 운다고 하여 두견화라고도 불렀다. 달맞이꽃은 밤에 피기 때문에, 보춘화는 봄에 꽃이 핀다고 하여 부른 이름이다. 그렇다면 식물은 꽃피는 시기를 어떻게 알까?

식물을 비롯하여 동물, 균류, 원생 생물, 세균류 등 모든 생물들은 지구의 자전 주기와 동일한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주기를 일주기성(日週期性)이라 하는데, 생물체는 이것으로 하루의 시간을 인식할 수 있다. 일주기성과 더불어 생물체는 광주기성(光週期性)을 가지고 있어 일 년의 시간도 인식할 수 있다.

㉠ 생물이 낮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광주기 능력을 보유한 덕분에 식물에게 어떤 현상이 일 년 중 특정한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며, 계절에 따라 식물이 반응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식물이 일주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적색광을 흡수하는 피토크롬(phytochrome)이라는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식물이 밤과 낮의 길이를 인식하는 것은 물론,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식물의 발달 단계에서 이 방법은 특히 일 년 동안 계절의 변화에 따라 기후가 규칙적으로 변해 가는 환경에서 식물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토크롬은 Pr(적색광 흡수 피토크롬)과 Pfr(원적색광 흡수 피토크롬)의 두 형태로 존재한다. 적색광은 Pr을 Pfr로 전환하게 하며 원적색광은 Pfr을 Pr로 전환시킨다. 일반적으로 태양빛은 원적색광보다 적색광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이 빛에 노출되면 Pfr의 양이 증가하고 밤 동안에는 Pfr의 농도가 서서히 감소한다.

그러면 식물은 계절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까? 단일 식물은 밤의 길이가 식물의 개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암기(暗期) 시간인 임계 암기(臨界暗期)와 같거나 임계 암기보다 더 길어지면 개화한다. 최소한 요구되는 임계 암기는 식물 중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10~14시간 정도이다. 단일 식물의 개화는 낮의 길이가 짧아짐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밤의 길이가 길어져야지만 시작된다. 단일 식물로는 국화와 코스모스가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늦여름이나 가을에 꽃이 핀다. 장일 식물은 밤의 길이가 임계 암기보다 짧거나 임계 암기와 같아지면 꽃이 핀다. 시금치, 상추, 붓꽃은 늦봄이나 여름에 개화한다. 이들은 봄이나 초여름 밤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인식하여 개화한다. 중일 식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질 때 개화한다. 사탕수수 와 콜레우스는 중일 식물로, 밤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너무 짧아지면 꽃이 피지 않는다. 중성 식물은 낮이나 밤의 길이에서 계절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대신 다른 요인들에 의해 자극을 받아 개화하는 식물이다. 이 식물들은 대부분 낮의 길이가 일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열대 지방에서 자생하던 식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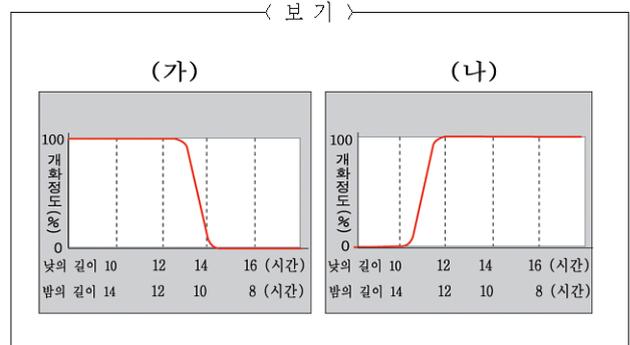
식물의 광주기성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제철이 아닌 시기에 꽃을 재배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장일 식물은 밤의 길이가 임계암기보다 짧아질 때 개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단일 식물은 밤의 길이가 임계 암기보다 길어질 때 개화가 유도된다.

[A]

5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화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핵심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 ④ 추상적 내용을 유사한 일상적 사례에 견주어 있다.
- ⑤ 대상의 종류를 구분지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57.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가)는 장일 식물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 ② (가)는 가을에 개화하는 식물과 관계가 깊다.
- ③ (나)는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 꽃이 핀다.
- ④ (가)보다 (나)의 개화 기간이 더 길다.
- ⑤ 모든 식물은 (가) 아니면 (나)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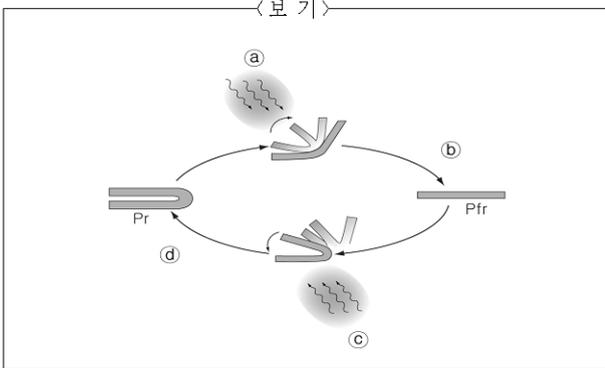
58.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의 핵심 내용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의문으로 알맞은 것은?

< 보 기 >

겨울 호밀은 장일 식물이 아니며 광주기와 관계없이 스물두 번째 잎이 발생한 후에만 개화를 한다. 만약 발아된 겨울 호밀을 수 주일 동안 1°C로 저온 처리하면 봄 호밀처럼 장일 조건에 반응하여 일찍 개화한다.

- ① 식물의 개화에 관여하는 또 다른 요인은 없는가?
- ② 식물이 개화 시기를 아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 ③ 개화 조건에 따라 식물의 종류를 구분 지을 수 있는가?
- ④ 식물에 따라 개화 조절 능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 ⑤ 식물이 계절에 따라 반응을 달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59. [A]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3점]



- |   | ㉠    | ㉡ | ㉢    | ㉣ |
|---|------|---|------|---|
| ① | 적색광  | 밤 | 원적색광 | 낮 |
| ② | 적색광  | 낮 | 원적색광 | 밤 |
| ③ | 원적색광 | 밤 | 적색광  | 낮 |
| ④ | 원적색광 | 낮 | 적색광  | 밤 |
| ⑤ | 원적색광 | 밤 | 원적색광 | 낮 |

60. ㉠이 적용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밤에 불을 밝혀 닭의 산란을 유도하였다.
- ② 깃털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 밤에도 불을 밝혔다.
- ③ 광주기성을 조절하여 일 년 내내 장미꽃을 생산했다.
- ④ 비닐하우스의 온도를 조절하여 사계절 채소를 기른다.
- ⑤ 빛을 차단하고 주기적으로 물을 주어 콩나물을 재배했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